

층간소음 '이웃 원수' 느끼는데... 아파트 규약 또다른 분쟁 우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련 권고... 강제성 없고 기준 모호 '유명무실'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각 시·도별 관리 규약을 마련, 시행토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약 자체가 이웃간 분쟁 유발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아파트 자치위원회들의 관리 규약 제정 의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5개 구에 따르면 올해 초 개정된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된 뒤, 30일까지 층간 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아파트별 관리 규약을 각각 마

련해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층간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한 주민 생활 규칙을 담은 관리 규약을 제출해야 하는 광주 지역 대상 아파트는 모두 628곳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층간 소음과 관련된 생활 수칙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은 탓에 전체 대상 아파트 중 20곳 만이 생활 규칙을 포함한 관리 규약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측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입주인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출률이 미흡한 것 같다"

고 밝혔다.

그나마 제출된 아파트 관리 규약도 행정기관이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는데, 획일화된 기준이 적지 않아 자칫 이웃 간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서구청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시 A 아파트 관리 규약안의 경우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닫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세탁 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등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토록 했다.

저녁8시~오전8시 까지 '쉴!'
맞벌이 부부는 어쩌라고...
의무관리 대상 지정 아파트
광주 629곳 중 20곳 만 제출
실효성 공감 못한 탓

또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자제토록 했다. 이대로라면 밤 10시 넘어서 들어온

맞벌이 부부가 설거지, 샤워를 하다가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B아파트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세탁기나 운동기구 사용 등을 금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지나친 사생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내놓은 관리 규약안이 광주시 서구가 마련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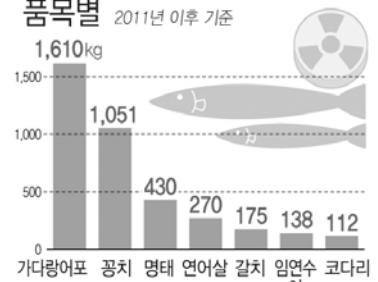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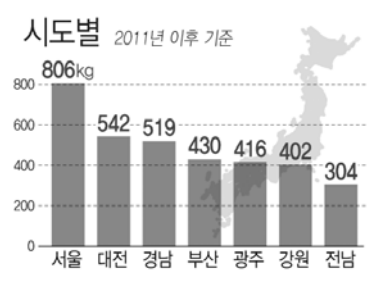
실효성도 미지수다. 층간 소음 규약을 어기더라도 특별한 처벌이나 제약을 없애서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서구청에서 층간소음 해소부문을 포함해 개정된 관리규약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의전화는 약 80건에 이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층간 소음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흥기로 윗집 주인을 쫓은 50대 남자가 광산경찰에 입건됐고, 층간소음문제로 위층에 사는 4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은 서부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웃침 (8894) 김창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광주·전남 초·중·고생 급식 일본산 수산물 721kg 먹었다

민주 김춘진 의원 국감 자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721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사용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달까지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721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16kg, 전남 304kg이다. 광주의 경우 2011년 14개 학교에서 252kg, 2012년 11개 학교에서 144kg의 일본산 수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6개 학교에서 21kg만이 사용됐다.

전남은 2011년 17개 학교 130kg, 2012년 16개 학교 116kg, 올해 10개 학교 58kg이 급식 재료로 쓰였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424kg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가다랑어 128kg, 대구 55kg, 갈치 45kg, 꽂지 32kg, 오

징어 11kg, 새우 10kg 등이 이용됐다.

학교급식 수산물은 일본산 외에 원양산이 75만2949kg(광주 23만9438kg, 전남 51만3511kg), 기타 수입산이 212만7611kg(광주 92만7086kg, 전남 120만525kg) 사용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시내 학교에서 2011년 이후 806kg을 사용했고, 대전 542kg, 경남 519kg, 부산 430kg, 강원 402kg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 (38kg)과 대구(36kg), 경북(25kg), 제주(5kg) 등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었다.



성폭행 공개수배 30대 검거

경기 파주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모(33)씨를 지인의 제보로 지난 26일 오후 안산 대부도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광주광역시에서 2004~2005년 발생한 강도강간 미제 사건 관련 여부를 캐고 있다. 이씨는 지난 2개월 동안 대부도의 한 컨테이너에서 도괴생활을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DJ센터 앞에서 DJ 비난 '주먹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시비, 서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들이 난리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52)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김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몸싸움으로 이어져 서로 멍살잡이를 했다는 것.

○경찰은 "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 김씨를 보니 참기 힘들었다"는 윤씨를 인건하는 한편, 폭력을 휘두른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업체 대표 징역 1년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D사 대표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납품한 부품은 냉각을 위해 해수를 유입시키는 곳에 사용돼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냉각이 되지 않아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원전에 납품해야 할 부품들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 것들로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09년 5월 18일께 고장 발생 시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성 Q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는 등 2011년 9월까지 9장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6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탈북 동료 개인정보 빼내 재입북 시도... 징역 1년6월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최근 동료 탈북자의 개인 정보를 쟁겨 재입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허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고 탈북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려다가 발각되자 다른 탈북자를 제보자로 의심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탈북자 3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쟁겨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출국금지로 배에 타지 못한 허씨는 다른 탈북자가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해 함께 지내는 쉼터에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분관 1층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분관 2층	브랜드피자 분양중
별관 1층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별관 2층	한정식 분양중
별관 3층	일식 분양중	별관 4층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별관 지하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